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壬午年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과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산업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방산업체 임직원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祝福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2001년은 9.11 테러사태로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고 계속된 탄저균 테러공포와 아프간 전쟁으로 지구상에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실이 새롭게 각인된 한 해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아직도 100만 대군에 노동1,2호 대포동1호와 같은 장사정 미사일과 방사포, 그리고 다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군사력의 70% 이상을 휴전선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여 유사시 즉각 공세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이후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 속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는 바, 이를 간과한 채 장미빛 환상 속에만 빠져 있다면 어떤 혹독한 시련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해 발돋움하는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중요한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安保不感症으로 인해 대북 경계심이 해이해진다면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 온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뿐만 아니라 공들여 쌓아 올린 경제력도 일시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의 축제인 2002 월드컵과 함께 부산 아시안게임이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테러에 대한 위협과 안보가 강조되는 때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2002년도 사업목표를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반 강화」로 정하고 방위산업진흥대책 강구 및 제도 개선, 부품국산화 촉진, 안정적인 방산물량 확보로 가동률 향상, 방산수출 증대 및 방산기술 협력선 다변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발전과 月刊<國防과 技術>의 발행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1월 1일

韓國防衛産業振興會 會長 沈利澤